

Daily Auto Check

2020. 5. 13(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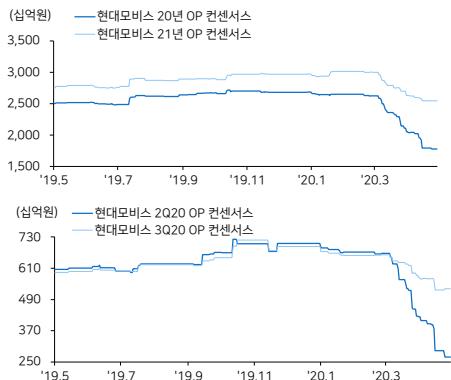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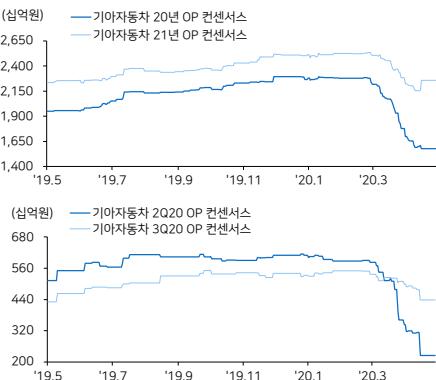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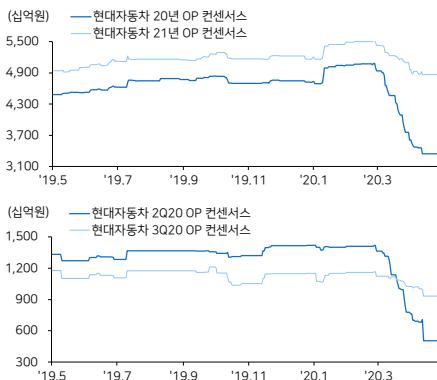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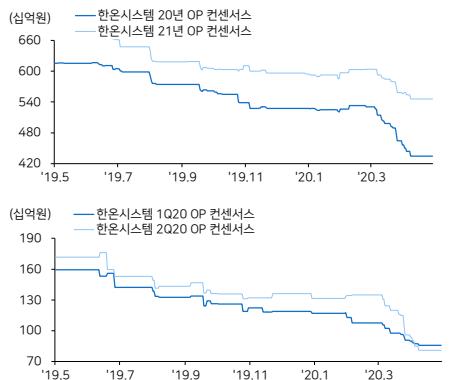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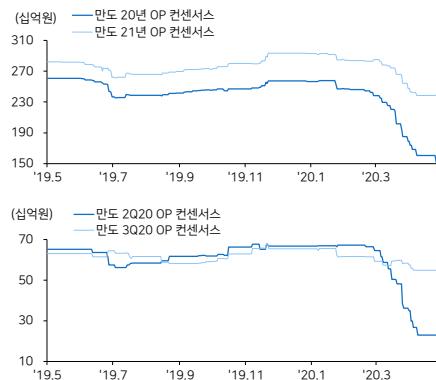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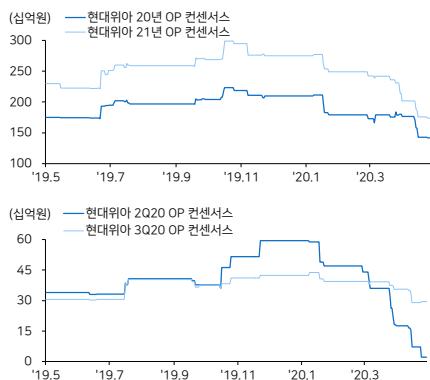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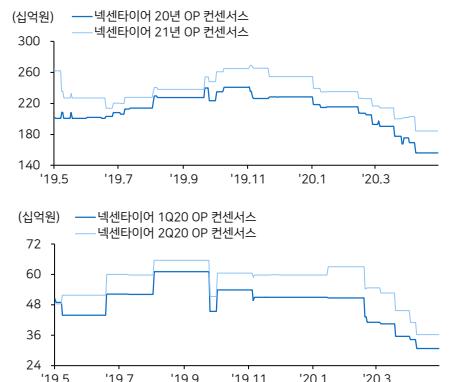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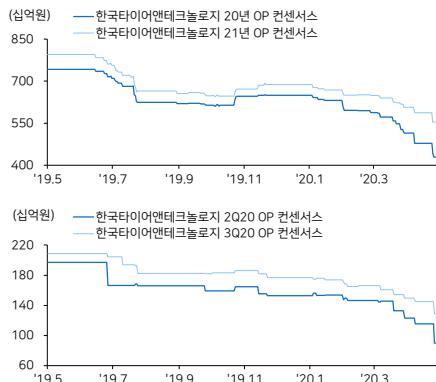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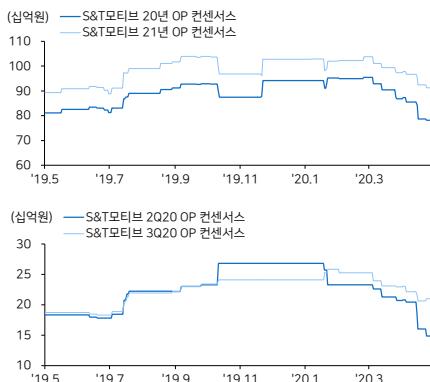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GV80, 月 1000대 증산кар... '출고지연' 슴통 트인다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가 폭발적인 인기로 대기수요가 밀린 제네시스 'GV80'의 생산을 늘리기로 함. GV80 증산으로 내수 판매에 적극 대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
<https://bit.ly/2WUhD70>

현대차, 인천공항에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짓는다 (중앙일보)

현대차가 인천공항제공망에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설치, 충전소는 공항 내 수소전기 셔틀버스의 충전에 사용됨.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3월 인천공제공망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버스 2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섬.
<https://bit.ly/3bsqeQY>

현대차 노조 "회사 망하게 하는 것"... 광주형 일자리 복귀한 한국노총 비판 (조선비즈)

지난달 29일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한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12일 "현대차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
<https://bit.ly/3bmCHZP>

유튜브 보고 事 산다...자동차도 언택스 시대 (디지털타임스)

자동차 시장에도 언택스(비대면) 바람이 거세지고 있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고객접점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쇼룸' 등 마케팅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
<https://bit.ly/2Z9rM4Z>

기아차, 3세대 부분변경 '모닝 어반'...경차 부활 이끈다 (아데일리)

기아차가 3세대 모닝의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모델인 '모닝 어반'을 출시해 침체한 경차 시장에서 반등을 노림. 기아차는 모닝 어반 판매목표를 기존 모델을 포함해 연간 4만6000대로 집계.
<https://bit.ly/2Y7YJpN>

하늘호 전열 정비 현대차... 17000조 시장 승부수는 (뉴스원)

PBV 전남 TF 팀을 꾸린 현대차그룹의 시장 공략 전략은 대량 양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초기 상용화. 전략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8년에는 PBV를 포함한 모성향 고밀리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https://bit.ly/2WUnoSW>

서울 상암 일반도로에 자율주행차 10대 달린다 (매일경제)

서울시는 12일 상암 문화광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을 가진다고 밝힘. LG유플러스, 언맨드솔루션, 콘트롤웍스, 도구공간, SML, 오토모스, 스프링클라우드 등 7개 기업과 연세대 등 학계가 참석식에 참여.
<https://bit.ly/2WqL16H>

Waymo raises another \$750 million for self-driving cars (Axios)

Waymo said Tuesday that it has raised another roughly \$750 million for its self-driving technology, expanding the size of its first external investment round to \$3 billion.
<https://bit.ly/3f1fSM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